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42 (2019-05)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연초부터 마을에 가고자 애썼지만, 연결이 안 되어 계속 알로타우에서 기다리다가 총회 참석차 우까룸빠에 올라갔을 때 어렵사리 연락되었다고 지난 3월 동역서신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월 알로타우로 내려와 마을 갈 준비를 하던 중 최근 마을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의 가뭄, 2월의 홍수에 이어 3월에는 사이클론까지 겹치면서 마을이 큰 어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집 또한 태양열 전지판이 강풍에 떨어졌고, 외부와 유일한 소통 수단인 라디오 안테나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에 당황이 되었고 마을을 갈 수 있는지도 불확실했지만, 위성 전화를 빌려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이후 모든 일정은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마을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은 1993년의 사이클론 아델 이후 26년 만의 큰 사이클론이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강풍이 밤새 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마을 곳곳에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집들도 무너진 곳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여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쓰러진 나무들과 집들을 정리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학교들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는 길은 더 엉망이어서 길도 다듬고 밭도 새롭게 고치고 고구마랑 얌도 다시 심느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지난 연말에 찍은 저희 집 모습입니다. 저희 집 옆의 망고나무를 비롯해 (가운데 위 사진) 마을 곳곳에 있던 큰 나무들이 대부분 쓰러졌습니다. 회의도 하고 쉼도 갖던 망고나무 아래의 그늘은 더는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나나 나무도 꺾이고 집도 20채 이상 무너졌다고 합니다.

밭들이 다 망가져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을 가기 전 우선 쌀 1톤을 배로 보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와 몇몇 단체에서 쌀을 보낸다고 하고, 저희도 조만간 쌀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7월 정도면 마을 사람들의 주식인 얌과 고구마를 다시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쓰러진 망고나무가 놀이터라도 되는 양 즐겁게 뛰어놉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큰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6:1-3, 새번역)

시편 기자의 고백이 카니누와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어수선한 마을 분위기였지만 속테스, 잭, 레비와 함께 에스더서를 점검하며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는 구전 성경 이야기 (Oral Bible Storytelling) 웍샵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경 이야기 비디오를 만드는 (Story Producer App) 웍샵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8분 정도의 짧은 비디오이지만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카니누와 말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최초의 영상 자료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노래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카니누와 말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있는 카니누와 종족을 비롯한 굿인업섬 북부의 피해 가정들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해
- 이번 재난을 계기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기를,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위해
- 마을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11장~) 속테스, 잭, 레비에게 지혜와 힘주시기를
- 7월 알로타우에서 진행되는 열왕기상~스가랴서 일부 (구약 파노라마) 점검을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카니누와 종족이,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개역개정)

2019년 5월 13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저희 PNG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PNG 우편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